

배합사료 공정규격 변경



강 경 국

(두산곡산(주) 사료판매부차장)
(본 지 편 집 위 원)

배합사료 공장의 기술 축적과 품질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82. 3. 1부터 8개 품목을 제외한 사료의 성분 등록을 사료제조업자 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하였다.

1982. 3. 1. 부로 농수산부의 배합사료 공정규격이 산란초기, 육계전기, 육계후기 I, 젓먹이돼지, 육성돈, 착유 II, 착유 III, 고깃소 후기 등 8개 품목의 성분규정으로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의 최소, 최대치를 제외하고는 전면 사료제조업자의 임의 자율성에 위임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된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을 보면서 생각나는 몇가지를 적어 보고자 한다.

1977년 봄 - 4월은 잔인한 달이라던가 - 사료업체는 마치 크나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온양 취급받아 커다란 홍역을 치루었던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 홍역의 부산물로 인하여 사료업체의 자율성이 무시 당하는 각종 규제 사항들이 범람하였다.

과거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의 일반 조성분만의 배합사료 공정규격에 칼슘, 인, 가소화조단백(D.C.P.), 대사 에너지(M.E.) 가소화 영양소총량(T.D.N.)이라는 추가 규제 항목이 공정규격에 포함되었다.

심지어는 배합비율표 작성시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범위까지 친절(?)하게 지정해주는, 정말 철저하게 사료업체의 기술 수준과 자율성이 무시되어지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료공장 근대화 시책으로 근대화 시설을 갖춘 사료공장의 수효가 늘어

나면서 업계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1980년도에 들어오면서 국내 각 분야에 걸쳐 자율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춰 농수산부 당국에서도 배합사료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각종 시책과 작업이 계속되어 왔고 또 진행중에 있다 하겠다.

이전의 배합사료 공정규격을 살펴보면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의 일반 조성분 이외에 칼슘, 인등 정량 분석법에 의해 규제 가능한 성분치의 최소, 최대치 규정과 M. E, T.D.N., D.C.P. 등 가축의 생체실험을 거쳐야 측정 가능한 항목을 단순하게 각종 연구논문 및 사양표준 등에 나타나 있는 수치를 적용시켜 계산되어진 서류 숫자로 최소치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은 가축의 성장별, 계절별 특성과 각 사료공장 나름대로의 여건이 무시되어져, 사료 품질 향상에 커다란 저해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수산부는 1980년 1월 배합사료의 자율화 방침(?) 첫 조치로 큰병아리, 육성우사료 등 생산비중이 낮거나 거의 생산되어지지 않는 배합사료 일부 품목에 대해 공정규격에 대한 규정을 사료제조업체의 자율성에 맡겨 2년여동안 소위 관리를 위한 규제라는 소리를

든던 사료공정규격에 대해 변화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1980년 7월 사료가격 자율화 조치와 병행하여 품질 자율화 2차 조치로 종계, 비육돈사료 등의 공정규격 자율화와 소, 돼지 사료의 D.C.P. 규정을 삭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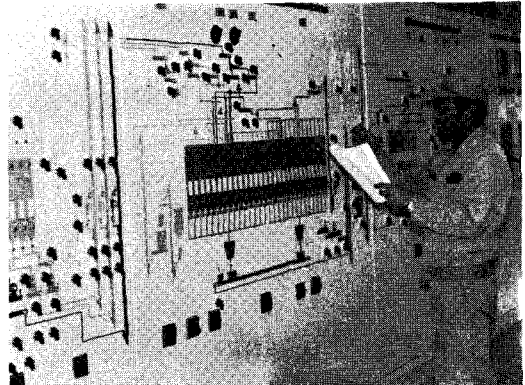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배합사료 자율화(품질 및 가격)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사료업계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과거 정부의 과보호 아래 성장해온 사료업계로서는 일순에 온실에서 밖으로 내놓아진듯한 느낌을 갖게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술축적과 內實을 제대로 기하지도 못하였고,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근대화 공장으로 생산능력은 엄청나게 늘었고, 게다가 소위 3차 오일 쇼-크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등이 수요 감퇴를 일으켜 사료 제조업체로서는 품질경쟁, 가격경쟁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경영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수록 사료제조업체는 선의의 품질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사료공장에서 적용하는 원료의 영



△ 배합사료 공정규격 완화로 사료회사는 더욱 많은 기술축적과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양소함량 분석수치 혹은 사양표준 등이 다양하며, 또한 조단백, M.E., 칼슘 등 단순히 표견적인 영양소 요구수준보다는 아미노산의 함량, 영양소 수준간의 균형, 혹은 유효인의 개념 등이 더욱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1982년 3월 1일부로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이 다시 변경 고시된 것이다.

특히 T.D.N., M.E. 등 과거 형식적 규제에 불과 하던 것을 사료공장 자체의 품질개선 및 기술발전에 맡겨 정상적인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기술축적을 하여 축산업계의 발전에

변경 배합사료 공정 규격

사료의 명칭		성분량의 최소량(%)				성분량의 최대량(%)	
		조 단 백	조 지 방	칼슘	인	조 성 유	조 회 분
양 계 용	산란초기	15.0	3.0	3.0	0.5	6.0	14.0
	육계전기	19.0	3.0	0.7	0.5	6.0	8.0
양 돈 용	육계후기 I	17.0	3.0	0.7	0.5	5.5	8.0
	젖먹이돼지	18.5	3.0	0.6	0.4	5.5	8.0
축 우 용	육성돈	15.0	3.0	0.6	0.4	5.5	8.0
	착유 II	15.0	3.0	0.7	0.5	10.0	10.0
우 용	착유 III	17.0	3.0	0.7	0.5	9.0	10.0
	고깃소후기	12.0	3.0	0.5	0.3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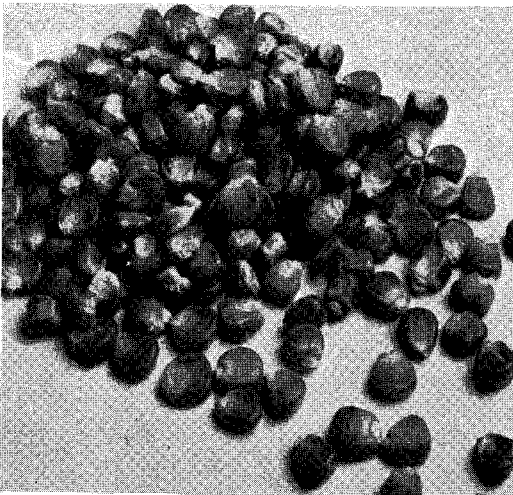
- 註) 1. 상기품목 이외의 품목은 성분동류시 사료제조업자 임의 등록
2. 상기 규제조항 이외의 항목(例 M.E 等)은 제외.

커다란 밀거름이 되게 하였음은 늦은감이 있으나 그래도 크게 반가와 할 것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8개 품목의 배합사료만의 성분량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그 이외의 품목은 사료제조업자가 임의 등록 하계끔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특기할 것은 형식적 규제대상으로 언급되던 T.D.N., M.E 價의 규정에 대한 삭제라 하겠다.

중전 규정상, 사료의 경제성 및 품질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서류감사를 대비한 숫자놀음도 많았다.



△사료업계는 국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진은 국내산 옥수수)

모 사료회사에서는 배합비율표 작성시 적용할 사료 원료의 T.D.N., M.E. 價를 정밀 구하기도 힘든 동구라과의 어느 공산권 국가의 데이터를 인용하였다 하여 실소를 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좀더 우수한 품질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겠지만 —

이제 그와같이 국산 원료의 성분 분석표를 얻기 위하여 국제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

는 국내자료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년전에 축산시험장에서 각 기관에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발간된 국내사료 원료성분 분석표들이 활용되고 애용되어질 듯 싶다.

또한 C/P Ratio 문제, 계절사료 문제, 대사에너지에 따른 아미노산 문제 등등 M.E. 나 T.D.N. 등과 연관되어 경제적 사료배합비율표 작성에 곤란을 받던 사료업계의 많은 생산 혹은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좀더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 하겠다.

그러나 고시된 8개 품목은 전체 사료생산량의 약70% 정도를 점하고 있기때문에 (물론 형식적 규제사항이 없어져 더욱 효과가 크지만) 배합사료 자율화 정책에 따른 기대치는 이에 반비례 된다 하겠다.

한때 그나마 공정규격이라도 있었으니 사료품질이 이만큼 유지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규제조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파생된 규제조항이 만들어져야하고 —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만 늘어 관리를 위한 행정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과거 가격과 품질을 공히 제재 받고있던 시기에 어느 사료공장에서 비단백 배 질소화합물을 양계용사료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의 사용을 成牛사료에 국한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달걀과 닭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이야기가 될듯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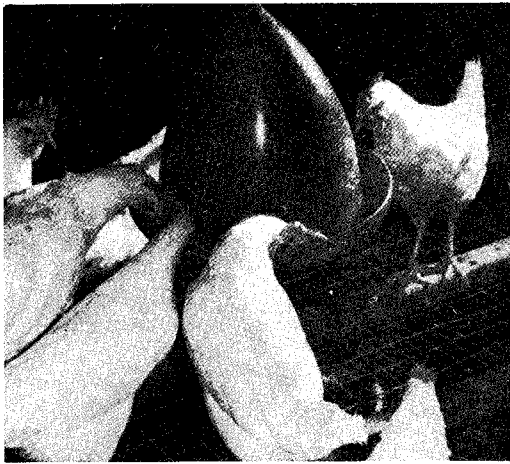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피혁 가공분말사용도 물의를 일으켰던 기억이 새롭다. 이 역시 규제조항은 어김없이 만들어지고 —

모두가 악순화의 연속이었다 하겠다. 물론 사료공업 초창기때 또는 성장하는 업계의 추세에 행정관리 능력이 지나칠 정도로 작용했던 때의 이야기들이다.

사료공업이 불과 15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발전한 속도는 정말 눈부신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일 업종으로는 드물게 연간 외형이 5천여억에 이르는 시장을 확장했고, 물량면에서도 20여배 이상의 신장을 하였으니 말이다.

물론 기술발전이 그 이상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육계사료의 효율이 2.7~2.8이라며 자랑하던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2.0~2.2라는 놀라운 숫자를 제시하며 판촉에 임하고 있는 지금이다.



이같은 결과는 물론 행정당국, 학계의 노력과 지원이 컸으며 축산업자의 노력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료제조업자들이 단순한 당국의 규제 위주의 행정능력을 앞서 노력해 왔음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사료업계의 기술축적내지는 발전이 미흡한 상태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료업계는 더욱 분발하여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규정들도 더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MEU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우성빌딩 203호) ☎ (445) 0212